

안전취약계층 특성별 대피시 고려사항

※ 출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 유형별 특징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내부장애인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치매노인

- 시간·장소·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해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임신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특성별 배려 사항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 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요약필기·문자·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觸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펌크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사진·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희귀질환 및 증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시각장애인

- 행정시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하고,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축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행정시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한다. 「x」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희귀질환 및 증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4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임신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체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1 태풍

1) 태풍오기 전

-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
- 지역 내 대피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숙지
-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재난 담당부서,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담당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스밸브, 전기차단기 위치 파악
- 행정시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대피소 파악
- 구급가방 준비 및 내용물 확인
(응급상황 건강정보카드, 응급상황 비상연락 카드, 본인확인서류, 비상약, 복용 약, 처방전, 대피경로지도,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생필품 등)
- 휠체어 안전상태 확인
- 창문 주변 접근 금지
- 거주지 주변 하수구·배수구 점검
- 거주지역이 침수, 산사태 등 재난위험 예상지역인 경우 행정시 재난관련 부서에 신고

2) 태풍도달 시(주의보, 경보)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파악
- 외출은 가급적 삼가
- 집안 창문 및 출입문 통제
- 휠체어, 손전등 비상 장비를 찾기 쉬운데 두기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거주주민은 대피 준비
- 대피 시 반드시 수도, 가스, 전기차단을 하고 대피

3) 태풍 지나간 후

- 도로, 상수도가 파손된 경우 행정시 자치센터에 연락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 침수된 집안은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가스·수도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
- 감전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근처 접근 금지
- 보수, 복구 시 사진 촬영 후 보관

2 호우

1) 비가 많이 올 때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할 것
-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둘 것
- 해안가에서는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 가까이 가지 말 것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방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둘 것

2) 호우가 지나간 후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관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 할 것

3 홍수

1) 홍수 전

- 거주지 주변 하수구·배수구 점검
- 배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정시에 연락
-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재난 담당부서,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담당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호우 대비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기
- 하천 등 침수우려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재난발생 대비가스밸브, 전기차단기 위치 파악
- 구급가방 준비 및 내용물 확인
(응급상황 건강정보카드, 응급상황 비상연락 카드, 본인확인 서류, 비상약, 복용약, 처방전, 대피경로지도,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생필품 등)
- 거주 지역 부근에 침수, 산사태 등 재난위험이 있으면 행정시 재난관련 부서에 신고

2) 홍수 시(주의보, 경보)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
- 지체장애인 당사자는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과 함께 행동하고 외출은 가급적 삼가
- 거주지가 침수지역이나 피해 발생 예상지역이면 지체장애인 당사자는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피

- 재난발생 대피 시 반드시 수도, 가스, 전기 차단 후 대피
- 휠체어, 손전등 등 비상 장비를 찾기 쉬운데 두기
- 재난 피해 발생 시 행정시 읍면동 연락(재난 담당부서,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담당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홍수 후

- 거주지의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 도로가 있으면 행정시 인근 자치센터에 연락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사용금지
- 수돗물, 저장 식수도 오염 여부 조사 후 사용
- 침수된 거주지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 후 들어가기
- 가스, 전기 차단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들어가기

[참고]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자기기능평가 척도 측정 서식

재난 시 지체장애인의 재난대응욕구(Special Needs) 준거 틀

: 기능(Function) (Kailes, J. & Enders, A, 2007)

기능	평가내용	“나”의 점수		
		1점	2점	3점
자립성	재난 시, 재난 후 의식주 생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재난대피 시 개인 관련 귀중품 및 생필품을 챙길 수 있습니까?			
	재난 시 스스로 재난 대응도구(예: 소화기, 소화전, 전기 차단기, 가스밸브 차단 등)를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택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사소통	재난구조 시 장애상태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릴 수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을 알리는 정보접근이 용이합니까?			
	재난발생 시 위험상황을 스스로 주변에 알릴 수 있습니까?			
이동	재난발생 장소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스스로 지정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악 & 인지	재난발생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지정 대피소 위치와 대피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개인의 장애정보가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의료	재난발생 시 장애로 인한 제약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건강정보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모든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나 담당 주치의가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구조요원에게 장애로 인한 의료적 특별한 욕구(Medical Special Needs)를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 시 평소에 복용하는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참고] 응급상황 비상연락 카드 서식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	
소방서	119
경찰서	11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6884
주민자치센터 재난관리 담당자	
관할 행정시 재난관리 담당자	
지역사회 재난관련 사회복지 담당자	
가족, 보호자, 이웃, 친구	
보호자1(본인과의 관계)	
보호자2(본인과의 관계)	
담당 활동보조인	
이웃	
친구	
지역사회 종교기관	
기타	

[참조] 재난 전 행동체크 항목

재난 전 행동체크 항목	준비여부	
	O	X
대피계획 세우기		
휠체어에 본인정보 라벨 부착하기		
휠체어 안전상태 확인하기		
휠체어 경사로 이동 연습하기		
전동 휠체어 사용 시 정전 대비 수동 휠체어를 준비		
필요한 의료장비 휠체어에 장착하기		
이웃집, 학교 등에 전동휠체어나 의료장비 충전 장비를 보관		
재난대피 이동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대피 용이한 거주지에 살기(1층)		
출입구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기		
대피훈련 연습하기		
활동보조인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통신 및 전기 두절상황 대비 재난대피 이동수단 모색하기		
재난대피 이동수단 지원기관에 연락하기		
숙지된 대피경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기		
재난구조요청 알림도구(호루라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에 전화하기		
재난 후 이동제약사항 공유 및 보고하기		
재난대비 원활한 이동수단 마련하기		

재난 전 행동체크 항목	준비여부	
	O	X
구급가방 준비 & 구급가방 용품 정기적인 교체하기		
재난 시 건강정보카드 준비하기		
건강정보카드 Kit 비치상태 확인하기		
의료적 특별한 욕구 (Medical Special Needs) 기록사항 확인하기		
복용 약 처방전 비치상태 확인하기		
정전 시 재난 대응 신체적 제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필요한 의료 장비를 위한 전원공급 방법을 알아보기		
필수 장비 사용 시 작동법을 재난 시 도와줄 사람에게 미리 숙지하기		
최소 3명 이상의 도움을 줄 사람들을 확보하기		
공동주택에 산다면 미리 접근 가능한 출구와 대피소를 파악하고 확인		
휴대폰과 추가 배터리를 확보하고 건물에 갇힌 경우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119 불통 시 도움을 줄 다른 연락처를 알아두기		
재난 시에도 작동하는 라디오나 호출기를 알아보기		
재난으로 손실이나 피해 시 변제 청구를 위해 소유물 기록 (기록이 재난 후에도 보존되도록 태풍/화재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 물품 사진을 찍고 각 항목 메이커와 모델번호 기록)		
지체장애인 자신을 구조 시 확실하고, 특정하고 간결한 지침서 준비		
재난 후 심리적 지원 네트워크 준비		
자신만이 모든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음: 재난 시 자신을 도와주는 준비를 잘 하도록 지역사회 담당부서와 협력, 자원 봉사 지원도 고려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 수도, 가스, 전기를 언제 어떻게 차단할지 알고 활동보조인과 도와 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함		
필수 기록 및 문서 : 증명서 등 중요한 기록 및 기타 중요 문서를 안전한 보관함이나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시각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1 시각장애 이해

- 시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전맹’ 과 잔존시력이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있는 ‘저시력’ 으로 분류됨.
-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도 있지만, 잔존 시각능력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전체 시각장애인의 90%를 차지
- 시각장애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2 기본 행동지침

대피 조력자

- 대피 시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지정
 - 조력자는 가족(보호자)뿐 아니라 건물 내 사람,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지정된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정함(전화 등)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제공받을지 조력자와 미리 결정함.

대피 경로

-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계획 모두 필요
-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건물마다 두 가지 이상(제1대피로, 제2대피로)이 대피경로를 설정)
- 만약 이용 가능한 대피경로가 없다면 대체 경로나 방법 모색
-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내 안전한 장소를 미리 모색
- 대피로 주변에는 비상용 키트를 비치하고 대피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전을 대비하여 저시력인은 손전등, 흰 지팡이 등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
- 정전을 대비하여 각 방과 통로에 비상등 설치
- 대피경로 계획 후 대피 조력자와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 연습
 - 재난상황에 혼자 있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확보
 - 외부와 통화시 본인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

안내견 보행자의 경우

- 안내견 보행자는 안내견을 포함한 대피 계획을 세움
- 재난을 대비하여 안내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 안내견과 함께 대피동선 및 대피소를 익혀둠

- 재난 상황에서 안내견이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견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
- 대피소에서는 안내견의 존재를 알려서 별도의 먹이와 관련 용품이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게 함.

대피후

- 대피 후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고 긴급상황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도록 함.
- 대피 장소에 시각장애인을 혼자 두어야 할 경우 주변상황을 설명하고 의자나 벽 주변 등에 머무르도록 안내
- 안전하다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음.
- 대피소 등에 모무르게 될 경우 대피소 책임자에게 시각장애인이 있음을 알리고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달.
- 대피소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을 시각장애인에게 전달
- 시각장애인이 대피소 화장실에 처음 이용시 함께 들어가 화장실 구조와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

3

재난대피계획 자가진단표

진단항목	예	아니오	필요자원
1. 대피 조력자를 지정하였습니까?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조력자외 미리 결정하였습니까?			
3.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건물마다 두가지 이상의 대피경로를 설정하였습니까?			
4.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 내 안전한 장소를 미리 알아두었습니까?			
5. 대피경로 계획 후 대피 조력자와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연습하였습니까?			
6. 시각장애 관련 용품, 문서, 비상용품, 개인용품으로 구성된 재난대비 가방을 준비하였습니까?			
7. 지팡이, 마스크와 물티슈, 고글형 안경(저시력 인용), 전등, 호루라기로 구성된 비상용키트를 준비하였습니까?			
8. 대피로 주변에 비상용 키트를 비치하였습니까?			
9. (저시력인의 경우) 정전을 대비하여 손전등, 흰 지팡이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였습니까?			
10. (안내견 사용자의 경우) 안내견을 포함한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까?			
11. (안내견 사용자의 경우) 안내견과 함께 대피동선 및 대피소를 숙지하였습니까?			

청각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1 청각장애인 재난대피

의사소통 방법

- 수어는 손으로 단어를 만들고,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내며 몸의 움직임 등으로 그 의미를 완성
- 필담은 종이에 글을 적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 몸짓은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나 감정을 신체사용을 통해 표현하는 것
- 이러한 소통방법 이외에 빛이나 진동, 문자, 수어, 주파수 변조방식으로 소리 등의 정보를 변환해주는 보조기기 활용 가능

재난대피 4요소

- 어떤 응급상황인가? (인지)
- 어디로 대피하나? (대피로 확인)
- 도움이 필요한가? (장비, 도우미)

○ 내가 필요한 도움은? (누가, 언제, 어떻게)

2 재난대비 용품

(목적) 재난으로 인한 고립 및 장기적인 문제 대비

(특징) 배낭형 가방 준비, 가급적 손을 사용하지 않는 도구 준비

(구성) 청각장애 관련용품: 의사소통 보조기기(보청기 및 건전지), 대피계획지도, 호루라기, 비상연락카드, 의료정보카드, 복용약 및 비상약, 마스크와 물티슈, 개인생필품

3 청각장애인 관련기관

○ 제주도농아복지관 064-711-9094

(영상전화) 070-7947-7472, 070-4175-9095

○ 제주특별자치도협회 064-743-3922 / (영상전화) 070-7947-0065

- 제주시지부 064-757-2120 / (영상전화) 070-7947-0390

- 서귀포시지부 064-733-6810 / (영상전화) 070-7947-0311

4

재난대피계획 자가진단표

진단항목	예	아니오	필요자원
1. 대피 조력자를 지정하였습니까?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조력자와 미리 결정하였습니까?			
3.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건물마다 두가지 이상의 대피경로를 설정하였습니까?			
4.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 내 안전한 장소를 미리 알아두었습니까?			
5. 대피경로 계획 후 대피 조력자와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연습하였습니까?			
6. 청각장애 관련 용품, 문서, 비상용품, 개인용품으로 구성된 재난대비 가방을 준비하였습니까?			
7. 마스크와 물티슈, 고글형 안경, 전등, 호루라기, 건전지가 포함된 재난대비 가방(소형)을 준비하였습니까?			
8. 대피로 주변에 재난대비 가방(소형)을 비치하였습니까?			
9. 재난발생 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10. 재난 대피시 유의해야 할 사항(질식 및 호흡곤란 방지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1. 재난발생 시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12. 재난발생 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